

[건설/건자재]

이광수
02-3774-1457
kwangsoo.lee@miraeasset.com

김명주
02-3774-1458
myoungjoo.kim@miraeasset.com

건설 (비중확대/Maintain)

맥주회사도 정유공장을 짓는다?

- 필리핀 산미구엘, 정유산업단지 신규 투자 계획 발표
-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플랜트 발주 계획 증가
- 아시아 플랜트 시장 확대로 한국 EPC 해외 수주 확대 가능

필리핀 San Miguel, 정유 산업단지 150억 달러 투자 발표

국내에서는 맥주 브랜드로 잘 알려진 필리핀 산미구엘이 정유 플랜트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필리핀에 일일 생산량 25만배럴 정유 플랜트와 석유화학 콤플렉스를 신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금액 150억 달러 규모이다. 산미구엘은 정유 분야뿐 아니라 발전플랜트 150억 달러, 조력발전소 36억 달러 투자 계획도 발표하였다. 현재 산미구엘은 필리핀 최대 정유회사인 Petron 지분 68%를 보유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정유플랜트 발주 증가

동남아시아에서 정유 플랜트 투자 계획이 확대되고 있다.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석유제품 내수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정유 플랜트 발주 계획은 811억 달러 규모로 중동 예상 정유 플랜트 발주 규모 260억 달러 대비 3배 이상이다.

주목되는 독자적인 다운스트림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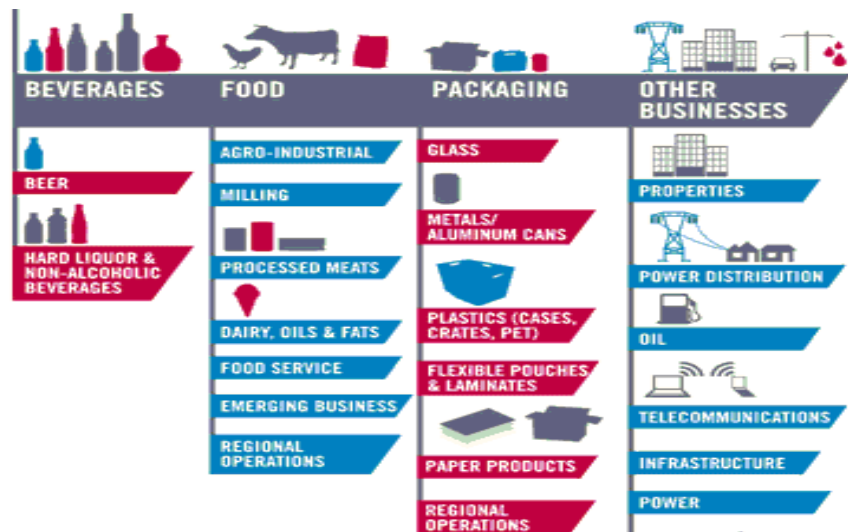
플랜트 투자 계획에서 주목되는 점은 동남아시아 국영석유회사의 독자 노선이다. 동남아시아 석유회사 플랜트 투자는 오랫동안 글로벌 IOC와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인도 Indian oil은 영국 Cairn Energy, 인도네시아 Pertamina는 Total, ConocoPhillips, 말레이시아 Petronas는 Exxon Mobil, Shell, 태국 PTT는 미국 Coastal Energy, 베트남 PetroVietnam은 Chevron이 주요 협력 업체였다. 이러한 투자 구도에서는 다운스트림(정유 등 하류분야) 분야보다 업스트림(원유, 가스 생산) 투자가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 전세계적으로 정유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IOC가 동남아시아에 다운스트림을 투자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향후 독자적인 동남아시아 국영석유회사 투자는 다운스트림 투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균형보다 내수와 정치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동남아시아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 투자 계획이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 확대는 시장 예상보다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아시아 플랜트 투자 확대, 한국 EPC 해외 수주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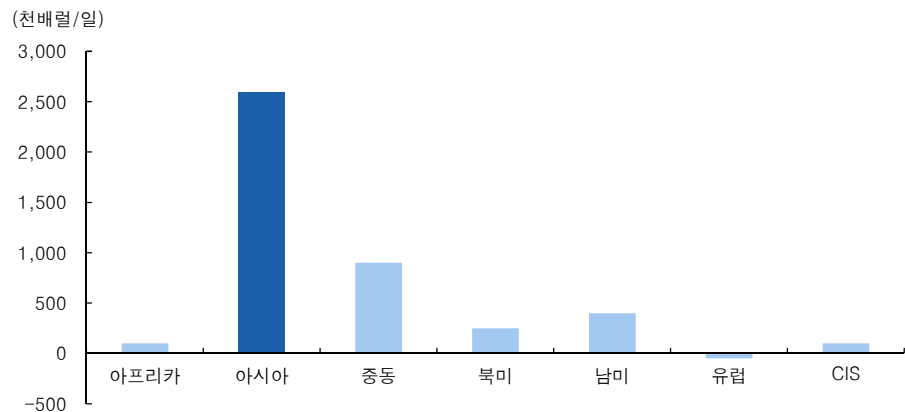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 발주 증가가 전망된다. 시장확대는 동남아시아 플랜트 시장에서 경험과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EPC 회사 신규 수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동과 함께 동남 아시아 플랜트 시장 확대는 위축되어 있는 해외수주에 활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그림 1. 필리핀 산미구엘 그룹 사업부문



자료: 산미구엘그룹,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2. 정유플랜트 정제 능력 추가 계획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 HIS,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표 1. 아시아 주요 국영석유업체 현황

국가	회사명	개 요
인도	Indian Oil	인도 최대 석유회사, 인도 정제능력 35% 차지
인도네시아	Pertamina	2016년 순이익 122% 증가, 투자 확대
말레이시아	Petronas	말레이시아 RAPID 프로젝트 개발
태국	PTT	매출액이 태국 GDP 20% 이상, 태국 최대 기업
베트남	PetroVietnam	100% 정유 소유 국영기업, 정유 기간 산업 육성
싱가포르	Singapore Petroleum Company	Singapore Refining Company 50% 지분 보유

자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